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 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 [미국 경제]

- WSJ: 올해 하반기에 채용 줄이는 미 기업 늘어난다
- Bloomberg: 미 제조 활동, 3여년 만에 빠른 성장...강한 수요
- Bloomberg: 아틀란타 연준 총재 "올해 금리 한 차례 인하...고용 지켜봐야"
- Reuters: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 "금리 인하 서두르지 말고 지표 확인해야"
- Bloomberg: 미 노동시장 둔화하나...신규 실업 청구건 증가

### [미국 금융]

- Investopedia: 내일 연준 의장 발언, 증시 향방 결정할 수 있어

### [무역전쟁]

- WSJ: 미국, EU가 관세 낮출 때까지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 27.5% 유지

### [에너지]

- WSJ: 미국 배터리 회사들, 해외로 눈 돌려

### [주택]

- YahooFinance: 7월 미 기존 주택 판매 예상 외로 증가

### [오일]

- Bloomberg: 원유 가격 상승세...미국 원유 재고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하면서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월마트, 매출 상승...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불구
- Bloomberg: Boeing, 중국에 최대 500대 항공기 판매 협상 중

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#### WSJ: More U.S. Companies Plan to Slow Hiring in Second Half of 2025 올해 하반기에 채용 줄이는 미 기업 늘어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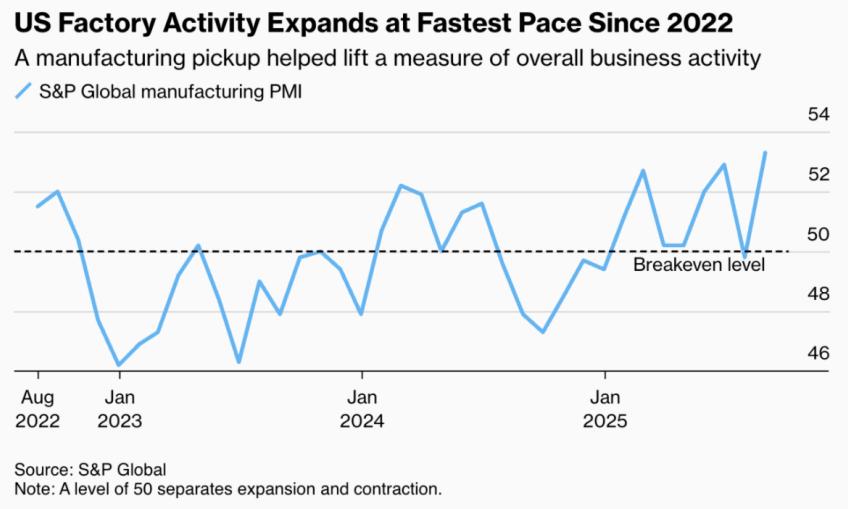
- 최근 컨퍼런스 보드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, 미국 기업 5개 중에 한개 꼴로 올해 하반기에 채용을 낮출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예컨대 Novo Nordisk와 Meta Platforms 같은 회사들은 일부 분야에서 고용을 중단하고 있다.
- 회사들이 추가 채용을 주저하는 것은 경제적인 불확실성, 관세, 불법 이민자 단속, AI 채택 등에 따른 것이다.

WSJ 기사

## Bloomberg: US Manufacturing Expands at Fastest Pace Since 2022 on Demand

### 미 제조 활동, 3여년만에 빠른 성장... 강한 수요

- 미 제조 활동이 3여년만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. 강한 수요 탓이다. 그러나 강한 수요는 인플레에도 동시에 압력을 주고 있다.
- S&P 500 8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(PMI) 예비치는 3.5포인트 오른 53.3을 기록해 지난 202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오늘 목요일 발표되었다. 수치 50 이상은 성장을 의미한다.
- 이 같은 수치 상승은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 관련 종합 관리자 지수도 키웠다. 종합 관리자 지수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.



Bloomberg 기사

## Bloomberg: Fed's Bostic Still Sees One 2025 Rate Cut, But Monitoring Labor

### 아틀란타 연준 총재 “올해 금리 한 차례 인하...고용 지켜봐야”

- 아틀란타 연준 총재인 Raphael Bostic는 지난 6월 예상 발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금리가 한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지만 “노동 시장의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지켜봐야 한다”고 말했다.
- 그는 “연준이 일단 한방향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앞으로 향하다 방향을 트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”면서 현재 금리 수준은 약간 제약적인 수준인데 내년에 연준 관리들이 보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.
- 한편 선물 거래에 따르면,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16일부터 양일간 회의에서 0.25%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 Reuters: Fed's Schmid says no urgency to cut interest rates but more data to come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 “금리 인하 서두르지 말고 지표 확인해야”

-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인 Jeffrey Schmid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 듯 하고 인플레가 연준 2%보다 목표 보다 높으며 노동시장은 아직 견조한 상태라고 진단 했다.
- 이에 따라 그는 금리 조정을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데이터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 그는 올해에 금리 정책 표결을 행사할 수 있다.
- 그는 현재 금리가 2%보다는 3%에 가깝다면서 단기 금리 인하가 인플레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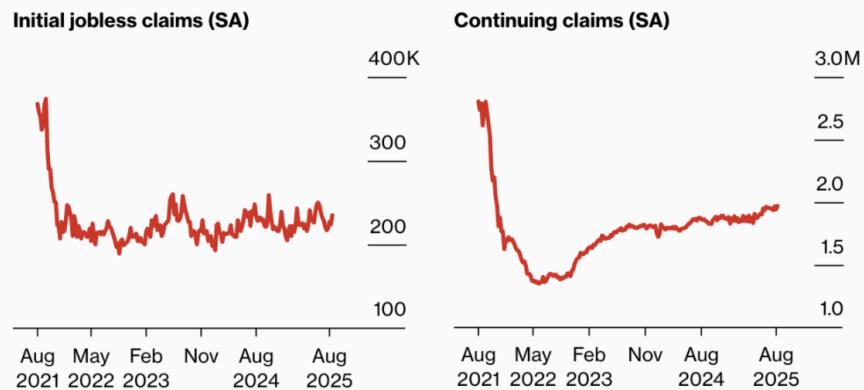
Reuters 기사

## Bloomberg: US Jobless Claims Rise, Adding to Signs of Slowing Labor Market 미 노동시장 둔화하나...신규 실업 청구건 증가

- 미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올해 6월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. 전체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상승했다. 노동시장이 둔화하는게 아니냐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.
- 연방 노동국의 오늘 목요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로 끝난 주의 신규 실업 청구건수는 11만 1천 건 늘어난 23만 5천 건을 기록했다.
- 전체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1백 97만 건으로 상승했다.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이래 최고치다.
- 최근 관련 지표에 따르면 고용 둔화에 실업률 상승, 그리고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든 추세들이 나오고 있다.

### US Jobless Claims Rise, Signaling Labor Market Slowing

Recurring filings climb to highest level since November 2021



Source: US Labor Department

Bloomberg 기사

## [미국 금융]

### Investopedia: Jerome Powell's Jackson Hole Speech Could Make or Break the Stock Market Rally

내일 연준 의장 발언, 증시 향방 결정할 수 있어

- 현재 모든 투자자들은 내일 금요일 잭슨 훌 심포지움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다. 그의 발언이 현재 랠리 중인 증시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.
- 도이치뱅크 분석가들은 “파월의 발언이 9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”고 경고했다.
-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,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주택 건설 업체나 작은 종목 등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의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.

Investopedia 기사

## [무역전쟁]

### WSJ: U.S. Will Preserve 27.5% Auto Tariffs on EU Until Bloc Moves to Reduce Levies

미국, EU가 관세 낮출 때까지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 27.5% 유지

- 미국은 EU가 미국산 해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때까지 EU 자동차에 대한 27.5%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.
- EU가 미국산 견과류, 유제품, 신선식품 등을 포함한 해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제안할 경우, 미국은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5%로 인하할 예정이다.
- 또한, 미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, 거의 모든 유럽산 상품에 15%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. 그러나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관세가 면제된다.
- 양국은 15% 미만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산업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.

WSJ 기사

## [에너지]

### WSJ: American Battery Companies Are Shopping Abroad

미국 배터리 회사들, 해외로 눈 돌려

- 미국에서의 청정에너지 지원이 약화됨에 따라 미국 배터리 회사들이 새로운 제조 기회를 찾고 있다.
- 실리콘 배터리 소재 제조업체 Group14 CEO Rick Luebbe은 “아시아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제조 과정을 다른 기업에 맡기지 않고 완전히 직접 관리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- 이 기업은 SK의 지분 25%를 보유해왔는데, 수요일 마감한 4억 6,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거래를 통해 SK의 실리콘 배터리 소재 생산을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.
- 또한,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배터리 회사 Lyten은 스웨덴의 배터리 스타트업 Northvolt의 독일과 스웨덴 소재의 생산 시설을 인수했다.

- 상품 가격 책정 기관 Argus Media의 배터리 책임자 Thomas Kavanagh는 “예측 할 수 없는 미국의 상황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배터리 기술 측면에서 미국을 앞서 고 있다”고 전했다.

WSJ 기사

### [주택]

#### **YahooFinance: US existing home sales tick up unexpectedly in July** 7월 미 기존 주택 판매 예상 외로 증가

- 7월에 미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 외로 상승했다. 그러나 여전히 판매 속도는 둔화 상태인데,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율이 구매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.
- 전국부동산협회(NAR)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7월 주택 판매가 전월에 비해 2% 상승해 계절별 조정 연율로 3백93만 채에서 4백1만 채로 증가했다. 당초 예상치는 3백92만 채인데 연율 증가율로는 0.8% 판매가 증가했다.
- 한편, Freddie Mac에 따르면,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지난 가을이래 가장 낮은 6.58%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. 그러나 여전히 높은 모기지율을 보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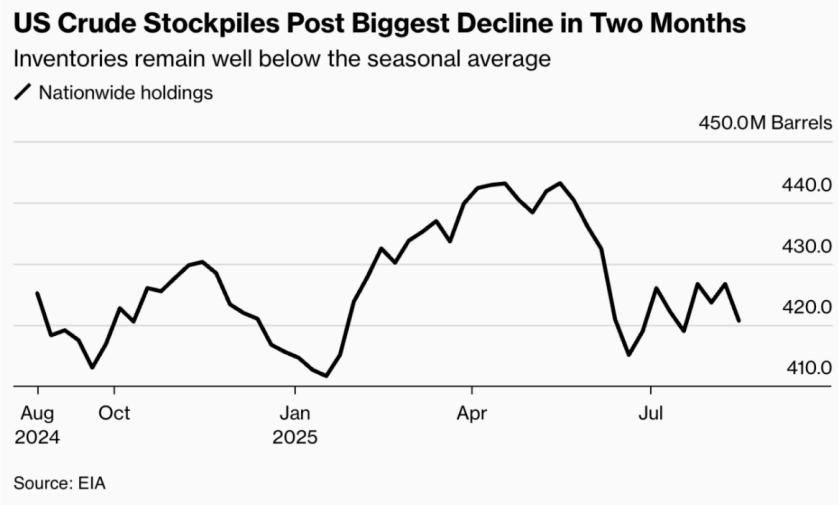
YahooFinance 기사

### [오일]

#### **Bloomberg: Oil Extends Gain After US Stockpiles Shrank Most in Two Months**

#### 원유 가격 상승세...미국 원유 재고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하면서

- 유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브렌트유는 배럴당 67달러 이상에서 거래 되었다.
- 지난주 미국 원유 공급량이 600만 배럴 감소했는데, 이는 6월 중순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.
- 많은 트레이더들이 올해 말 원유 재고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, 전 세계 재고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황이다.
- 한편, 올해 유가는 여전히 10% 이상 하락했다. 트레이더들은 공급 과잉 및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, 이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.



Bloomberg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# WSJ: Walmart Wins Over More Shoppers as Tariffs Push Prices Higher 월마트, 매출 상승...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불구

- 월마트의 매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.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압박을 받는 시기에 회사의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.
- 월마트는 가격을 평균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관세 비용을 흡수하고 있다고 밝혔다. 또한, 할인 혜택 및 빠른 배송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.
- 그러나 월마트는 최근 분기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. 이는 인력 감축과 근로자 및 소비자 보험금 청구 관련 비용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WSJ 기사

#### Bloomberg: Boeing in Talks to Sell as Many as 500 Planes to China Boeing, 중국에 최대 500대 항공기 판매 협상 중

- Boeing이 중국에 최대 500대의 항공기를 판매하는 계약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. 이 거래가 성사될 경우, 2017년 이후 침체되었던 항공기 중국 판매가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.
- 양측은 제트기 모델의 종류와 수량, 일정 등 복잡한 항공기 판매 조건을 아직 조율 중이다.
-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, 양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Boeing 항공기 주문을 계속해서 언급해왔다.
- 아직 미국-중국 간 무역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, 이 계약은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무역 협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Bloomberg 기사

## [보고서]

**美 주요 기술주 동반 약세 마감...전날보다 낙폭은 줄어  
엔비디아 0.14%↓..."파월 발언 매파적이면 더 큰 압력"**

미국 주요 기술 기업 주가가 전날에 이어 20 일(현지시간)에도 동반 약세로 마감했다. 낙폭은 전날보다 대체로 줄었다.

시가총액 1 위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0.14% 내린 175.40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.

주가는 이날 소폭 하락한 뒤 168.80 달러까지 떨어지며 170 달러선이 붕괴하기도 했다. 그러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크게 줄였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